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경은 이수림[†]
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변인의 매개역할 여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은 2,090명이며,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들인 부모의 학대, 교사관계, 교우관계, 가해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학교안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역기능적 순환을 막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학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행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림,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mail: sulimhm@hanmail.net

서 론

본 연구는 가정 안에서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이 두 변수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저연령화되고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사이버환경에까지 퍼져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탈피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주도해야 하는 배움의 장인 학교는 폭력의 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생을 가해자, 피해자로 분류하며 학생들의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일부 학생들의 장난이나 싸움정도로 여겨지던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학생을 넘어서 학교전체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그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환경인 가정과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정안에서의 폭력 및 학대와 학교폭력간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공격성이나 폭력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Merksy & Reynolds, 2007; Salzinger, Rosario, & Feldman, 2007),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학교안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폭력경험에 노출될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민정, 2010; 김재엽, 이순호, 2011; 김정란, 2014; 박성숙, 박성옥, 손의성, 2015;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조춘범, 조남홍, 2011), Mejia 외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보고되어 왔다(정윤경 외,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가정안에서 경험하는 학대나 폭력의 영향력은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게 되는 학교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 학대가 학교폭력행동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자기 자신이 나쁜 아동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기신념은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이봉주, 김세원, 2014). 수치심이 높은 경우 자신의 수치심을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있다(Bennett, Sullivan, & Lewis, 2005). Agnew는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발생하면 화와 우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이지연, 박동필, 2015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가정안에서의 폭력과 학대가 고스란히 학교안의 또래에게 전환될 수 있고, 가정과 학교를 오고가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또래관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은 공격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정익중, 2008). 또한 학대로 인한 정서적 억압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아동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미, 이지은, 정익중, 2013). 이렇듯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관계의 어려움은 학교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가정안에서는 피해자이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폭력의 전수자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학대를 경험했지만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거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탄력성 이론에 근거한 개인 내외적 보호요인은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Perkins & Jones, 2004).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도 학대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의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모두 관계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관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보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부적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박범규, 2009). 교사의 무관심이나 비일관성, 권위주의적 태도 등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교사에 의한 폭력적 체벌의 경험은 폭력의 학습 또는 폭력의 정당화를 부여해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정, 2003).

김민성 외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안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환경체계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는 중요하다고 보았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에서 재인용). 학대받은 경험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요 매개변수로 나타나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영현, 2007).

먼저 교사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애착대상이 형성될 수 있으며(Meehan, Hughes & Cavell, 2003), 이러한 대안적인 애착대상과의 관계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긍정적인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고(Meehan et al., 2003), 학대받은 아동에게 보호요인의 하나로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의미있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며,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김순규, 2007).

김은형은 교사와의 관계와 함께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인간관계이자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기능하는 교우관계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권지은 외, 2013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윤미선, 이영옥, 2005),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친구의 지지는 대인불안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박상미, 2008). 또한 긍정적 또래의 영향과 같은 발달자산은 폭력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박성숙 외, 2015). 한 대상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대상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이미 손상된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정익중, 박민아, 2013).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가정에서는 학대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른인 교사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학대의 피해자에서 폭력의 가해자로 전환되는 연결지점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라는 관계적 손상이 학교에서 맺는 주요 대상인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매개될 때 학교폭력가해라는 문제행위를 낮추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교사 및 교우관계가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와 학교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경험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김나예, 2012; 김미정, 염동문, 2012; 김영현, 2007; 김진, 김명식 2011; 배화옥, 2010; 송미령, 이재연, 2011)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 학대경험 및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들(박은주, 최말옥, 2014; 이인선, 최지현, 2014; 정익중, 2008)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김재엽, 이순호, 2011; 김정란, 2014; 정윤경 외, 2012; 조춘범, 조남홍, 2011)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거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성이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와의 관련성에서 교사 및 교우의 관계적 측면을 매개로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안에서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설정하고 이들이 두 변수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안에서 학대받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역기능적 순환 고리를 막기 위해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교사관계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중학생의 교우관계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층화표집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학교 경험, 행동, 환경 등을 조사한 자료이다. 2013년 4차년도 패널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수준으로 가장 높았다는(교육과학기술부, 2012) 현황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성지희, 정문자, 2007)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 응답자는 전체 2,378명이었고, 해당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자 1,097명, 여자 993명의 총2,09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 변인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

여 구성된 척도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김현수, 1997).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척도를 이용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심하게 때리기(폭행)’,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빼기(뺨뜯기)’의 6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하고 총합점수를 산출하여 가해행위 척도를 구성하여, 6개 항목의 가해행위의 빈도의 합을 학교폭력 가해경험으로 측정하였다.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하위요인 ‘교우관계’ 5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61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관계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 ‘교사관계’ 5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최종 분석 대상 2,090명은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남학생이 1,097명(52.5%), 여학생이 993명(47.5%)으로 남자가 5%가량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 비경험자가 1,890명(90.3%)였으며, 가해 경험자가 202명(9.7%)이었다. 가해 경험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해경험자가 남자는 133명(65.8%), 여자는 69명(34.2%)로 남학생이 약 2배정도 많이 분포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 경험은 부모의 학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07, p<.01$), 교우관계($r=-.13, p<.001$)와 교사관계($r=-.08, p<.0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학대는 교우관계($r=-.23, p<.001$)와 교사관계($r=-.09, p<.001$)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는 정적상관($r=.44, p<.001$)을 보였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 | 1 | 2 | 3 | 4 |
|----------|---------|---------|--------|------|
| 1. 가해 경험 | | | | |
| 2. 학대 | .07** | | | |
| 3. 교우관계 | -.13*** | -.23*** | | |
| 4. 교사관계 | -.08*** | -.09*** | .44*** | |
| 평균 | .15 | 1.79 | 3.12 | 2.93 |
| 표준편차 | .56 | .69 | .42 | .65 |

** $p < .01$, *** $p < .001$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부모의 학대, 교사관계, 교우관계, 가해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대는 가해경험과 정적 상관이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부정적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 교우관계가 좋은 것과 교사관계가 좋다는 것이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가해경험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와도 부적상관이 나타나 가해경험이 부정적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대가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7, p<.01$), 2단계에서도 학대가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 p<.001$), 3단계에서도 교우관계의 영향력($\beta=-.11, p<.001$)이 유의하면서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beta=.07, p<.01$)보다 3단계($\beta=.04, p<.05$)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교우관계는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는 Z값이 1.96이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4.71, p<.001$). 학대와 가해 경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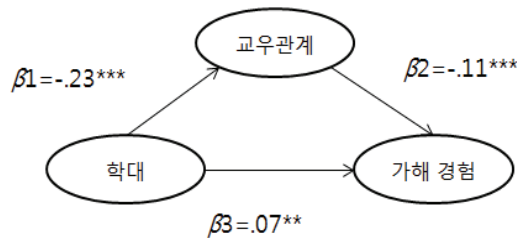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에서 교우관계의 부분 매개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 | | B | S.E. | β | t | R ² | F |
|-----|------------|------|------|---------|-----------|----------------|-----------|
| 1단계 | 학대→ 가해 경험 | .06 | .02 | .07 | 3.20** | .01 | 10.24** |
| 2단계 | 학대→교우관계 | -.14 | .01 | -.23 | -10.86*** | .05 | 117.96*** |
| 3단계 | 학대→가해 경험 | .04 | .02 | .04 | 1.99* | .02 | 18.46*** |
| | 교우관계→가해 경험 | -.15 | .03 | -.11 | -5.12*** | | |

** $p<.01$, *** $p<.001$



[그림 1]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부분 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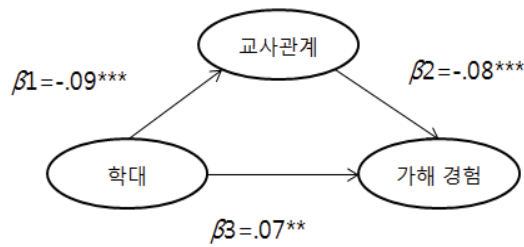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대가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7$, $p<.01$), 2단계에서도 학대가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9$, $p<.001$), 3단계에서도 교사관계의 영향력($\beta=-.08$, $p<.001$)이 유의하면서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beta=.07$, $p<.01$)보다 3단계($\beta=.06$, $p<.01$)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교사관계는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는 Z값이 1.96이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2.76$, $p<.01$). 학대와 가해 경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부분 매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 | B | S.E. | β | t | R ² | F |
|---------------|------|------|---------|----------|----------------|----------|
| 1단계 학대→ 가해 경험 | .06 | .02 | .07 | 3.20** | .01 | 10.24** |
| 2단계 학대→교사관계 | -.09 | .02 | -.09 | -4.21*** | .01 | 17.71*** |
| 3단계 학대→가해 경험 | .05 | .02 | .06 | 2.92** | .01 | 11.59*** |
| 교사관계→가해 경험 | -.07 | .02 | -.08 | -3.55*** | | |

p<.01' *p<.001



[그림 2]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부분 매개 모형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통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모의 학대, 가해행동, 교사관계, 교우관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의 주요 변수인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폭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옥, 박경규, 2002; 김재엽 외, 2008; Mersky & Reynolds, 2007; Salzinger et al., 2007)와 일치하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민정, 2010; 김정란, 2014; 정운경 외, 2012; 조준범, 조남홍, 201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사 및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상처를 다른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의 배경에 가정안에서의 학대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발견하게 된다면 학교폭력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적 개입 이전에 가정에서의 학대상황에 따른 심리상태와 상처치료에 대한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시 가정에서의 학대사실이 밝혀졌다면 학생의 가정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이다. 가정안의 폭력이나 학대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해 학생에게만 개입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피해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사정과 함께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과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이인선, 최지현, 2014). 가정과 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순환과정에 따른 배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모면담, 가정방문,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학대는 위기상황이며, 학교의 교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학대 신고의 의무자이다. 따라서 가정안에서의 학대와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면 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대는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손상을 가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대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대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학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개입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다. 학교안의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가정안에서의 학대가 학생의 부적응이나 학교폭력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개입하며, 개입 결과에 대해 학생의 학교생활 상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우관계가 좋으면 부모의 학대가 있더라도 가해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교우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며, 학대피해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우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설명(권지은 외, 2013)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또래 접촉의 시간도 길어진다.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학대경험을 친구에게 노출할 수 있으며, 학대경험에 따른 상처를 또래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학대로 인한 불안감이나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공격성을 해소하고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은 학급 내 학생들의 또래관계와 관계

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며, 학급구성원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학급안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급구성원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문화를 근절시키고, 또래지원자나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학급 전체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대받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등한 입장의 또래가 가정안에서 벌어지는 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또래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노출했다면 이 사실을 교사나 관련전문가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없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만일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학교 내 상담실, 학교사회복지실, 교육복지실, 위클래스 등의 실질적인 운영과 전문가 배치를 통해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성 표출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각받고 이러한 욕구가 자칫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정당화를 부여받거나 지지받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사관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의 학대가 있더라도 가해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애착대상과의 관계는 학대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Meehan et al., 2003), 학대아동에게 교사 지지가 포함된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김순규, 2007)와 일부 일치한다. 학대의 가해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된 경우라도 또 다른 어른인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해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사는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을 발견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라는 점과 피해아동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이에 따른 지지제공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지은 외, 2013)는 점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교사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대안과 보호의 환경이 되어줄 수 있다.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 및 양육자에 의한 학대경험을 통해 겪게 되는 상처나 관계의 부정적 영향력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맺는 부모와는 다른 어른인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정에서 학대받은 청소년이 관계형성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학대경험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가해하는 문제행동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또한 교사 및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환경에서라도 어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에서조차 교사의 언어,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인관계에 있어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 모두가 폭력의 환경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고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학교폭력의 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한 학대와 폭력의 영향력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불식간에 학교안에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나 태도가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허용되는 폭력, 학급안에서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폭력, 선후배간이나 동급생간의 서열의 확인을 위한 폭력 등이 명백하게 폭력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긍정적인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는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폭력의 피해자인 청소년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의 문제는 단지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의 학대경험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비율이 202명(9.7%)으로 비가해 경험자에 비해 소수이므로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 이외에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들의 표집을 선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측정은 학교폭력 행동의 6가지 항목의 빈도로 이루어졌다.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은 빈도이외에도 그 정도도 고려해야 하며, 6가지 항목 이외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해 경험자의 수가 적고,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이라는 관계에서 교사관계 또는 교우관계의 매개변인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학대와 가해행동 사이에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교사, 교우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없었던 바,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 김나예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민정 (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6(1), 27-53.
- 김순규 (2007). 보호요인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9(2), 251-275.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현 (2007). 학대경험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정란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내재화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69-279.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진, 김명식 (2011). 아동이 지각한 학대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및 학교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17-27.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규 (2009). 학교폭력의 심리적 원인과 그 대책. 인권복지연구, 5, 25-57.
- 박상미 (2008).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인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숙, 박성옥, 손의성 (201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달자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1), 217-229.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배화옥 (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성지희, 정문자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1-18.
-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안은미, 이지은, 정익중 (2013).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01-226.
- 윤미선, 이영옥 (2005). 남·여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 컴퓨터 게임 중독, 학업 성적 간 관계 모형 비교. 교육 방법연구, 17(2), 183-197.
- 이봉주, 김세원 (2014). 아동학대가 아동·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아동과 권리, 18(2), 163-195.
- 이은정 (2003).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해경험집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이지연, 박동필 (2015). 부모의 과보호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55-76.
-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4), 79-100.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 박민아 (2013). 모의 우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보상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9, 241-267.
- 조춘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ron, R., & Kenny, D. A. (1986).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nett, D. S., Sullivan, M. W., & Lewis, M. (2005). Young children's adjustment as a function of maltreatment, shame, and anger. *Child Maltreatment*, 10(4), 311-323.
- Meehan, B. T., Hughes, J. N., & Cavell, T. A. (2003).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s compensatory resources for aggressive children. *Child Development*, 1145-1157.
- Mersky, J. P., & Reynolds, A. J. (2007). Child maltreatment and violent delinquency: Disentangling main effects and subgroup effects. *Child Maltreatment*, 12(3), 246-258.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5), 547-563.
- Salzinger, S., Rosario, M., & Feldman, R. S. (2007). Physical child abuse and adolescent violent delinqu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Maltreatment*, 12(3), 208-219.

The Influence of Parents' Abuse on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A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Ko kyung Eun Lee Su Lim

Open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For the study, a sample of 2,090 middle school junior students who was surveyed in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e correlations showed that the relation of parents' abuse, relations with teacher, relations with friends, and offend behavior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e mediation affects of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between parents'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were acted as protective factors about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In the en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rvention of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Abuse, School-violence, violent students with offenders experience, Relations with teacher, Relations with friends

